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하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식적 말하기의 상황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격식 있는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한편 내용을 구성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표나 연설을 하는 상황이라면 도입부에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전개부에는 중간중간 요점을 정리해 주면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을 넣고, 결론부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 주고 인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준언어란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그 예이다. 같은 언어적 표현이라도 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준언어적 표현 이외의 방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말하는 이가 나타내는 시선, 얼굴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 표현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0과 1로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터는 제한된 수의 글자가 할당된 자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니터를 출력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입력과 출력 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또한 기존의 글쓰기가 대체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더욱 절실하였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소통 맥락은 새로운 화법과 문자 사용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 통신 언어이다.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온라인 매체로 이동 통신의 문자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최근 다양한 스마트폰의 문자 응용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문을 주고받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특히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되었다. 하지만 숫자판을 전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불편함도 많았다. 이러한 단점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언어 표현 방식을 찾게 하였다.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입력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겹받침의 사용을 자제하고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다. 문자 메시지는 대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대화에 가깝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중요한 소통 정보인 억양이나 표정 등의 맥락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통에 장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메시지인 '긍정', '부정'의 정보가 잘못 전달될 여지가 있다. 이에 ㉡ 문자 메시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내용 뒤에 '^^'을(를), 부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ㅠㅠ'을(를) 덧붙이곤 한다. 또한 그림말을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1. ㉠을 위해 온라인 매체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글쓰기 방식을 (나)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70자 이내) [20점]

1-2. (가)에서 설명한 세 가지 표현 방식 중 ㉡에 가장 가까운 표현 방식을 찾아 쓰고, 그것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50자 이내) [20점]

1-3.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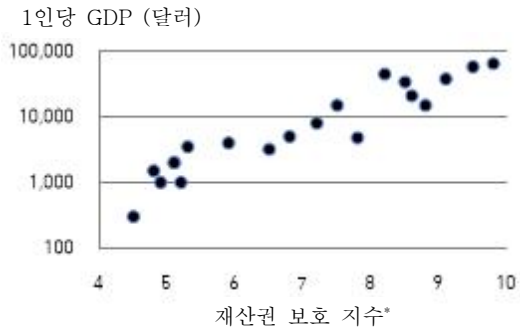
<보기>

최근 전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온라인 매체 또는 뉴 미디어라고 부른다.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온라인 매체에서는 기존의 독립적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정보 전달의 방식 역시 새롭게 변화하였다. 개방된 형태의 누리 소통망을 떠올려 보자. 최초의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익명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 최초 게시자가 답변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매체는 ____ⓐ____와(과) ____ⓑ____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매체의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경제제도의 차이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지를 얻고 있다. 경제제도 중에서도 특히 재산권 제도가 중요한데 [그림]은 재산권 보호 정도가 높은 국가가 소득이 높은 국가임을 보여준다. 재산권 보호 정도가 소득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중요한데,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재산권 보호와 1인당 소득



*관련 법령과 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0에서 10까지 점수화한 지수임

그렇다면 저개발국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선진국처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 사회갈등론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사회갈등론에 따르면 정치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제도를 선택한다. 정치권력이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특권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착취가 용이한 경제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특권층의 착취가 심할수록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자본 축적 의지가 약해져서 경제발전이 지체된다. 또한 특권층은 착취를 통해 부를 독점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강화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더욱 착취가 용이한 경제제도를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저개발국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제도 선택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은 경제학자 ㉡ 코즈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반박할 수 있다. 코즈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둘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여 농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표]에서 공장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면 공장의 이익은 크지만 농민의 이익은 작다. 반면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공장의 이익이 작고 농민의 이익은 크다. 이때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총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장으로서는 굳이 이익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정화시설을 설치할 유인이 없다.

[표] 공장과 농민의 이익

정화시설	공장의 이익	농민의 이익	총이익
미설치	60	30	90
설치	40	70	110

이때 정화시설을 설치하되 이로부터 농민이 얻는 이익의 ㉢ 일부를 공장에 지불한다면 공장과 농민의 이익이 모두 커진다. 이처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 <보기>의 ⓐ에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35자 이내) [20점]

<보기>

(가)의 [그림]이 반드시 재산권 보호와 소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주장을 살펴보자. 인류에게 가장 많은 열량을 공급하고 있는 작물은 대부분 온대지방에서 작물화되었다.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에서는 식물들이 열매에 많은 열량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온대지방의 농업 생산성은 열대지방에 비해 30% 이상 높다. 온대지방에서는 농업을 통한 정주 생활 확대 덕분에 분업과 지식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추후 공업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소득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한편 열대지방과는 달리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공동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게 만들어 특권층의 전횡에도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온대지방에서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는 경제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2-2. 저개발국의 경제제도 선택 문제에 ㉡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의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보기>를 활용하여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모든 거래에는 항상 약속 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에서는 한 사람이 먼저 무엇인가를 주고 다른 한 사람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준다. 경우에 따라 주는 시간과 받는 시간의 차이가 매우 작을 수는 있지만 약간의 시간 차이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때 먼저 무엇인가를 주는 쪽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의 위험은 사용자와 노동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처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반대급부를 장시간에 걸쳐 제공할 때 더욱 커진다. 따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속 이행을 강제할 중립적 제3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법·제도를 통한 처벌과 구제라는 방법으로 약속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3. 아래 식은 ㉢의 범위를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의 [표]를 바탕으로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20점]

( ) < ㉢ < (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능력주의란 능력,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이다. 이 이상이 실현되려면 우선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에 걸맞은 일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 장애유무 등 개인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개인을 평가해야 한다. 즉,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면 개개인이 집단의 성과물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 즉,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능력주의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의 작성자이자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혈통에 뿌리를 둔 신분제 사회인 구대륙과 달리 재능에 근거한 새로운 나라를 신대륙에 세우고자 했다. 그의 이상적 국가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 명예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정의롭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민주주의 인권 이념과 함께 봉건제도를 타파하는 혁신적인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 후 능력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일반을 규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분배 정의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까지 계층 간 이동성 강화의 기제로 여겨지고 있다.

더 나아가 능력주의 이념은 역사 속에서 소수자 사회운동의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평등과 보편적 시민권을 선포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성, 노예,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해 왔다. 현실은 언제나 평등한 시민권의 이상에 미달했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려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페미니즘 운동 등은 배제되는 자 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능력을 함양하고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능력주의는 이러한 주장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나) 사실 '능력'은 그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다. 능력은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암기력과 성실성이 학생의 중요한 능력이던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은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 자질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실은 능력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되기도,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볼 건지, 해당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결정하는 과정은 언제나 정치적인 과정이며, 인간의 편향이나 사회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사회구조와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 속도와 효율성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비장애인 위주의 가치체계이다. 비장애인이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평가 기준이 상식적으로 느껴질 뿐이다.

능력주의가 애초 대변했던 근대적 객관성과 민주적 가능성은 능력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에 근거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매력적인 이념으로 기능하며 우리에게 능력주의를 벗어나서 사고하기 어렵게 한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능력주의를 조직 운영 원칙으로 내세우는 기업일수록 역설적으로 인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에 의거한 결정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사람들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본인의 평가가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믿으며 그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듯 능력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견고하고 대중적인 믿음은 능력주의를 자기 배반의 이념으로 만들었다. 신분제를 타파하는 혁명으로 세워진 미국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현대판 세습 사회가 되었으나 이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당연시된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자연스러운 형태는 평등이 아니라, 경쟁과 차등적 대우가 되었다.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승자만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 체제는 절대다수의 패자를 이등 시민으로 낙인찍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모욕마저도 온전히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모욕 사회로 만들고 있다.

3-1. 능력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가)와 (나) 각각의 입장과 그 근거를 쓰시오. (150자 이내) [20점]

3-2. 흔히 임금 격차는 능력주의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의 입장에서 <보기>의 ⓐ를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가)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한 경제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A국 상위 350개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동일 산업 노동자의 평균 연봉에 비해 1965년에는 약 20배 수준이었지만 90년대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무려 400배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A국에서는 ⓐ 기업 최고경영자 연봉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3-3. <보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공적 공간에 진출해서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획득한다고 해도 노동에 있어서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증명되어 왔다. 즉, 성별분업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사적 공간에서의 돌봄 노동은 여전히 무임금으로 수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 역시 저임금 직종으로 유지되고 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을지 말지의 선택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 증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당신은 심판의 날에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으로 드러날 세계를 놓고 도박을 벌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동전의 앞면, 즉 신의 존재에 가진 돈을 모두 건다면, 당신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라.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즉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 당신이 진다고 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 신이 존재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가진 돈을 신에게 거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절차에 의해 당신이 유한한 손해를 입을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무한한 이득을 얻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가?

(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사악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과학의 위대한 체계로 관심을 돌려서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심 없이 피땀 흘려 기울인 노력이 그 토대에 놓여 있는 것을 상기해 보면,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감상주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경멸스러운가? 개인의 위안과 기쁨을 위해서 증명되지 않고 도전받지 않은 진술들에 믿음을 부여할 때, 믿음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 외에 다른 요소에 기반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이지 않다.

(다) 진리를 믿어야 하고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적 의무이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의 명령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아니고 두 가지 별개의 의무이다. 진리의 추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오류를 피하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류를 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진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어떤 물음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해야 한다는 태도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떤 문제의 본성상 증거를 획득하기 힘든 경우에, 오류를 피하려는 태도를 고수하면 이 문제에 관한 진리를 획득할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게 된다. 어떤 믿음을 갖는지가 자신에게 긴급하고 중대한 함축을 갖는 문제일 경우, 또 증거가 한쪽 믿음을 확실하게 결정해주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이익이나 감정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 선택을 결정하는 정당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종교적 문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와 진리를 믿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한쪽 믿음을 갖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 진정한 의미의 관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4-1. <보기>가 (가)의 논증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되도록 ⓐ와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0점]

<보기>

(가)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과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령,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신이 아니라 '질투의 악령'이 존재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___ⓐ___ 손해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질투의 악령이 존재할 확률이 ___ⓑ___고 가정하지 않는 한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반드시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4-2. (다)에 따르면, (나)는 자신이 주장한 합리적 믿음의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3. (다)의 관점에서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보기>

- 신을 믿는 것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합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증거와 상관없이 믿음을 갖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신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합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을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에, 걸인 하나가 나에게 모자를 내밀었다. (중략)

㉠ 나는 지체 없이 내 눈앞의 거지에게 덤벼들었다. 단 한 번의 주먹질로 그의 눈을 들이박았더니, 그게 한순간에 공처럼 부풀었다. 그의 이빨 두 개를 부러뜨리느라고 내 손톱 하나가 깨졌는데, 나는 태생이 연약하고 주먹질 연습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늙은이를 당장에 때려눕힐 만큼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던지라, 한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어, 그의 머리를 벽에다 세차게 부딪치기 시작했다. (중략)

오, 기적이여! 오, 제 이론의 탁월함을 확인하는 철학자의 기쁨이여! 갑자기 나는 저 해묵은 해골이 몸을 뒤집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으며, 그토록 형편없이 망가진 기계 속에 들어 있으리라곤 상상할 수도 없던 정력으로,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전조라고 여겨지는 증오의 시선을 들고, 이 늙어빠진 불한당은 나에게 덤벼들어 내 두 눈을 멍들게 하고, 내 이빨 네 개를 부러뜨리고, 나뭇가지로 나를 횟가루가 되도록 후려팼다. 내 막강한 치료술로, 나는 그에게 이렇듯 긍지와 생명을 되돌려준 것이다. (중략)

"여보시오. 당신은 나와 평등한 인간이오! 부디 나에게 내 돈지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주시고, 또한 당신이 정말로 박애주의자라면, 당신의 동업자들이 당신에게 적선을 바랄 때, 내가 당신의 등 위에서 그토록 힘들여 시도했던 이론을 그들 모두에게 적용할 것을 잊지 마시오."

그는 자기가 내 이론을 이해했으며, 내 권고를 따르겠노라고 나에게 확실히 맹세하였다.

- 보들레르, <가난뱅이들을 때려눕히자!> 중에서

(나)

길을 걷고 있었다.... 노쇠한 거지가 나를 멈춰세웠다.

눈물 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헤진 누더기 옷, 더러운 상처.... 아, 가난은 어쩌면 이다지도 처참히 이 불행한 인간을 갉아먹었던 것일까!

그는 빨갛게 부푼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듯 적선을 부탁한다.

나는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없다, 시계도 없다, 손수건마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거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내민 그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나는 힘없이 떨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 덥석 움켜잡았다....

"용서하시오, 형제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려."

거지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파리한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대로 나의 싸늘한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습니다, 형제여."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 역시 적선이니까요."

나는 깨달았다. 나도 이 형제로부터 적선을 받았다는 것을.

- 투르게네프, <거지>

(다)

나는 고개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텁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 잃어 푸르스럼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ㅡ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 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ㅡ

- 윤동주, <투르게네프의 언덕>

*통조림통의 일본말

5-1. (가)의 화자가 ㉠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20점]

5-2. (나)에서 ㉡은 화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 이와 대조적인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화자의 행동을 찾아 쓰시오. (30자 이내) [10점]

5-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에서 거지를 대하는 화자들의 태도를 비교하고 두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흔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욕구와 도울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한계를 이해하는 대신에 우리만의 판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 또한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동정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만 중요한 서로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우리와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감각 능력을 갖고 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들의 유사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고려하기를 요구한다. 인종주의자는 자기 인종과 다른 인종 사이에 이익 충돌이 있을 때 자기 인종의 이익을 더 중시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 마찬가지로 종족주의자는 자기 종족과 다른 종족 사이에 이익 충돌이 발생할 때 자기 종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인간 종족주의자들은 소나 돼지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처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릇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동물의 고기가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일 때 더욱 그렇다. 이누이트 부족민들은 동물을 죽여 음식으로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육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식단을 옹호할 수 없다. 산업화된 사회의 사람들은 동물의 고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적합한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육식이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육식은 열량을 섭취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도 아니다. 우리가 곡물을 동물에게 먹일 때 단지 열량의 10%만이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고기로 전환된다. 동물 고기는 단지 그 맛 때문에 좋아하는 일종의 사치품이다. 특히 공장식 농장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사육 과정에서 커다란 고통을 당한다. 좁은 사육장에서 길러지며, 거세, 어미와 새끼의 분리, 낙인, 수송, 도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는 동물도 고통을 받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유류, 조류와 같은 척추동물의 신경체계는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굴, 조개와 같은 연체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은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경우에 자극 반응 연구를 통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식물의 경우에는 고통을 느낀다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나) 어떤 동물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우리에게 강한 도덕적 의무를 부여한다. 소나 돼지를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때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은 소나 돼지를 사육하고 도살하여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동물들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즉 동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태도이다.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한 존재에는 포유동물이 포함된다. 조류나 연체류와는 달리 중추신경계가 매우 발달한 포유동물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일련의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그 동물들은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욕구를 갖고 있고 자신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그 가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 존재에는 도덕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도덕적 무능력자도 포함된다. 도덕적 행위자는 자율적 존재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능력이 있는 성인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유아나 포유동물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서 그러한 의무를 이해하거나 자율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들은 도덕적 무능력자이기에 의무를 갖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

6-1. (가)와 (나)는 모두 육식을 반대하지만 그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다.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에 대한 비판을 (가)와 (나)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1가지씩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보기>

벤저민 프랭클린은 ⓐ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때 채식주의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생선의 배를 갈랐을 때, 그 생선 속에 더 작은 생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서로 잡아먹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한 후부터 동물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6-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0점]

<보기>

① (가) 주장을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형태의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만을 해야 하는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② (가) 논리를 따른다면 자연의 생존 과정에서 동물의 권리와 식물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나) 주장을 따른다면 조류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④ (나) 입장은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간주함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⑤ (나) 논리를 따른다면 자연에서 포유동물이 연체동물을 잡아먹을 경우에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⑥ (나) 주장은 (가) 주장에 비해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2021학년도 논술(AAT) 고사(인문계열)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인문계열 1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겹받침 사용을 자제한다’,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간다’. (각 5점) • 일부 내용만 기술할 경우에 한 항목 당 5점씩 감점.	20
1-2	• ‘비언어적 표현’만 들어가면 5점. •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만 들어가면 5점.	20
1-3	• ‘쌍방행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 모두 있는 경우 20점, 한 가지만 있는 경우 각 10점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10점 인정.	20

2. 예시 답안

<정답 예시>

1-1.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겹받침 사용을 자제하고,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간다.

1-2.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한다.

1-3.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

인문계열 2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기후라는 제3의 원인이 재산권과 소득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 자연환경 등 기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도 정답인정 기후, 재산권, 소득수준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제3의 요인”, “공통의 원인”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였으면 정답으로 인정 표현과 단어 선택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20
2-2	*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1. 특권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2. 약속 이행을 강제할 3. 중립적 제3자가 없다 * 요소 중 한 가지가 빠지면 5점, 두 가지가 빠지면 10점 감점. * 표현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20
2-3	(a) 10점 (b) 10점	20

2. 예시 답안

2-1.
기후가 재산권 보호와 소득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쳤기

2-2.
거래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 이행을 강제할 중립적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저개발국의 경우 특권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2-3.
(20) < ㉢ < (40)

인문계열 3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능력주의와 평등한 사회와의 관계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서술하였는지를 평가함. ▶ (가), (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채점 **(각각 10점씩)**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	20
3-2	(가)에 서술되어 있는 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분배에서는 기여와 보상의 비례성이 중요하다. 이를 <보기>의 최고 경영자 연봉 문제에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평가함. ▶ 최고경영자가 기여(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상(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여(능력)과 보상(연봉)의 대비를 통해 서술하였으면 **20점** ▶ 예시 답안에 괄호 부분 (기여와 보상의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분은 생략 가능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 경우 감점.	20
3-3	(나)에서의 능력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기>의 현상을 해석하는 데 적절히 적용시켰는가를 평가함.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점. 경우 감점.	20

2. 예시 답안

3-1.
(가)는 능력주의가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본다. 반면 (나)는 능력주의가 능력의 규정과 평가가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은폐하고 우리 사회에서 평등보다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고 본다.
(가)는 능력주의가 소수자 사회운동에 활용되면서 평등을 증진시켰다고 본다. 반면 (나)는 능력주의가 불평등한 사회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경쟁과 차등적 대우를 당연시하게 만들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3-2.
(기여와 보상의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그 기여에 비해 보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3-3.
((나)의 관점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력을 덜 가진 사회에서 능력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남성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적 일로 규정된 노동이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4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보기>에 제시된 반론을 정확히 이해하여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 채점. - a의 경우 '무한한' 또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썼을 경우 10점을 부여함. - 이외의 답('큰', '막대한' 등 포함)은 모두 0점 처리함. - b의 경우: '0이라', '없다', 또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썼을 경우 10점 부여. - 그 외의 답은 0점 처리함.	20
4-2	- (다)의 비판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와 그 논거를 제대로 제시했냐에 따라 채점. - "증거 외의 다른 요소에 기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 자체는 증거에 기반하기 보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증거 외적인 요소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 20점.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두려움", "감정"을 쓴 경우에도 20점 부여. - (나)의 주장이 증거 외의 요소에 기반한다는 것은 제대로 지적했으나, 어떤 요소인지(두려움, 또는 감정) 지적하지 않으면 15점 부여.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	20
4-3	'진정한 의미의 관용'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보기>의 태도가 어떤 점에서 이와 다른지를 파악했느냐에 따라 채점. - '진정한 의미의 관용'이 어떤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모두를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해당하는 반면, <보기>의 두 입장은 한 쪽 입장만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런 의미의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 20점. - '진정한 의미의 관용'의 의미를 파악했으나, <보기>의 태도가 이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10점. - <보기>의 태도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했으나, 이를 '진정한 의미의 관용'으로 파악한 경우 5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20

2. 예시 답안

4-1. a: 무한한, b: 0이라

4-2. (나)는 증거 외에 다른 요소에 기반한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 자체는 증거 외적인 요소, 즉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한다는 것이 (다)의 주장이다.

4-2. (다)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용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는 자신의 믿음만이 합리적이고 다른 쪽 믿음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가정한 채, 그것을 용인하는 태도이다.

인문계열 5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거지 역시 화자와 동등한 인간임을 깨닫도록 의도된 행위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20점 (가)의 제시문 상에서도 “긍지와 생명”, “평등한 인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는 경우 감점. -2.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감점. -3~-5점.	20
5-2	“만지막만지작” 혹은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모두 10점. 이외의 다른 답은 0점.	10
5-3	(가)의 화자가 거지를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7점 (다)의 화자가 거지를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7점 (가)와 (다)화자들의 거지를 대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없으면, -6점. 문장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 -5점 이내. 핵심어나 도식으로만 작성하면 -5점.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감점. -3~-5점.	20

2. 예시 답안

5-1.
거지의 긍지와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함이다.
거지 역시 화자와 평등한 인간임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5-2.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다.
만지작만지작

5-3.
(가)의 화자는 거지를 가르치고 통제하려 하는 반면, (다)의 화자는 거지를 동정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려한다. 두 화자 모두 거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가)는 거지를 깨우쳐줘야 할 대상으로 보고, (다)는 동정의 대상으로 본다. 모두 상대방의 개별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거지를 대하고 있다.

인문계열 6번 문항 채점 기준 및 답안

1.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 (가)와 (나)의 육식 반대 이유와 관련하여 그 핵심적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답안: (가)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보며 (나)는 동물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본다. - (가), (나)의 이유 각각 10점씩 부여함.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2	▶ ⓐ 주장에 대한 비판을 (가), (나)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1가지씩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됨. 답안: 동물의 육식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인간의 육식은 사치이다. 그리고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없지만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본받아 육식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 (가), (나) 각각의 내용에 의거한 비판 각각에 10점씩 부여함.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20
6-3	▶ <보기>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모두 선택했는지를 평가함. 답안: ①, ②, ③, ④ - 옳은 선택지 한 개 당 5점씩 부여하고, 틀린 선택지 한 개 당 5점씩 감점함.	20

2. 예시 답안

6-1. (가)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보며 (나)는 동물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본다.

6-2. 동물의 육식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인간의 육식은 사치이다. 그리고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없지만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율적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본받아 육식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6-3. ①, ②, ③, ④